

2015 영어과 교육과정 교과서에 나타난 의사소통기능의 사용 분포 및 특성 분석

신 동 광
(광주교육대학교)

Shin, Dongkwang. “Analysis of the Distribution and Characteristics of Communicative Functions Used in English Textbooks Based on the 2015 National Curriculum.”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7.4 (2021): 305-329. The present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distribution and characteristics of communicative functions according to the textbook hierarchy and section, focusing on ‘Common English’ –‘English I’–‘English II’ textbooks based on the 2015 National Curriculum. Those textbooks were also compared with the use of the communicative functions utilized in Korean learner spoken and written corpora and English native speaker spoken and written corpora. The results showed that first, in the three textbooks, the function of ‘delivering information and requesting information’ took up the largest portion in common, and there was no clear difference in the frequency or diversity of the communicative functions among the textbooks. Second, the three textbooks showed a pattern quite similar to the distribution of the communicative functions used in the English native speaker corpora. However, in the case of the Korean learner corpus, the ratio of some communicative functions (e.g., expressing emotions) was much higher than that shown in the textbooks. Third, among the top 10 sub-functions of the communicative functions used in the three textbooks and four corpora, four sub-functions such as ‘making statements and reporting’ were commonly used in all the datasets. In conclusion, some implications were presented, including the result that it was possible to analyze communicative functions used in a large amount of textbook data. (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Key Words: communicative functions, ColloGram, 2015 National Curriculum, English textbook, corpora

I. 서론

현재 영어과 교육과정은 2015년 개정에 기반하고 있다. 하지만 6차 영어과 교육과정 이래 우리나라의 영어과 교육과정은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의 향상을 목표로 하여 변함없이 개념-기능중심 교수요목(notional-functional syllabus)을 바탕으로 개발되었다(교육부, 199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5). 이는 기존의 전통적인 교수법이 언어의 구조(structure)에 초점을 둔 반면 사회적 맥락 속에서 언어의 실제적 사용(use)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차별화된 접근이었다. 여기서 개념(notion)은 추상적인 개념(예, 시간, 공간 등)과 상황적 맥락(예, 쇼핑, 여행 등)을 포괄하는 의미이고, 기능(function)은 약속하기, 요청하기, 감사하기 등 의사소통을 위한 구체적인 기능을 의미한다(Brown, 2000).

여러 학자들이 이미 의사소통기능을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하였다. Halliday(1973)는 의사소통기능을 7개 즉 도구적(instrumental) 기능, 규제적(regulatory) 기능, 표상적(representational) 기능, 상호작용적(interactional) 기능, 개인적(personal) 기능, 발견적 기능(heuristic), 창의적(imaginative) 기능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기능에 구체적인 세부 기능은 제시하지 않았다. 반면 Wilkins(1976)는 의사소통기능을 8개 범주(양상[modality], 도덕적 규율과 판단[moral discipline and evaluation], 권고[suasion], 주장[argument], 이성적 탐구[rational inquiry and exposition], 개인적 감정[personal emotions], 정서적 관계[emotional relations], 대인 관계[interpersonal relations])로 나누고 세부 기능을 함께 제시하였다. 의사소통기능의 분류에 가장 보편적으로 인용되는 기준은 van Ek와 Alexander(1980)의 의사소통기능 분류이다. 이들은 의사소통기능을 6개의 범주(사실적 정보 주고받기[imparting and seeking factual information], 지적 태도 표현하기[expressing and finding out intellectual attitudes], 정서적 태도 표현하기[expressing and finding out emotional attitudes], 도덕적 태도 표현하기[expressing and finding out moral attitudes], 설득 및 권고하기[getting things done], 사교활동 하기[socializing])로 분류하고 그에 해당하는 세부 기

능을 68개로 다시 구체화하여 제시하였다. 다만 세부 기능이 일부 유사하여 모호한 부분이 있기도 하다. 또한, Finocchiaro와 Brumfit(1983)은 의사소통기능을 5개 범주(개인적[personal] 기능, 대인적[interpersonal] 기능, 지령적[directive] 기능, 지시적[referential] 기능, 상상적[imaginative] 기능)로 나누고 세부 기능을 보다 상세화하여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상상적 기능에 대해서 시, 이야기, 연극 만들기, 친숙한 대화나 글을 창조적으로 조합하기 등 매우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기능과 언어의 소재가 혼재되어 분류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이현우, 이성희, 이희경, 2013).

7차 외국어(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위의 분류 기준을 참고하여 의사소통기능을 총 7개의 상위 범주(친교 활동, 사실적 정보 교환, 지적 태도 표현, 감정 표현, 도덕적인 태도 표현, 지식과 권고, 상상하기)로 나누고 이를 다시 47개의 중위 범주(예, 인사하기, 소개하기, 보고하기, 수정하기 등), 그리고 중위 범주를 다시 87개의 하위 범주(예, 만나고 헤어질 때 인사하기, 안부 묻기, 정보 묻기 등)로 나누었다(한국교육개발원, 1997). 이후 2009 영어과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의사소통기능을 상위범주(예, 정보 전달하기와 요구하기, 사실에 대한 태도 표현하기, 지식, 기억, 믿음 표현하기 등)를 11개로 분류하고 하위범주(예, 확인하기와 상술하기, 동의하기, 알고 있음 표현하기 등) 122개를 설정하였다. 또한 의사소통기능 예시문의 경우, BNC(British National Corpus)의 검색을 통해 활용 빈도가 높은 표현으로 수정하여 제시하였다(이현우 외, 2013). 그리고 현행 교육과정인 2015 영어과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2009 영어과 교육과정의 의사소통기능에서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다만 상위범주의 ‘담화 구성하기’에 포함된 하위범주 중 하나였던 ‘예시하기’ 기능이 제외되어 하위범주에 해당하는 의사소통기능의 수가 122개에서 121개로 축소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영어과 교육과정의 의사소통기능 목록 중 어떤 기능들이 실제 교과서에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만 가능하였다. 한 가지 방법은 수작업으로 분석(예, 김진희, 2014; 송자경 외, 2003)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분석하고자 하는 교과서 코퍼스에 일일이 의사소통기능의 유형을 구분하여 태깅(tagging)을 하고 코퍼스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그 빈도수를 분석(예, 강하나, 김정렬, 2020, 2021; 이아현, 김미숙, 이동

주, 2017)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이유로 다양한 교과서를 분석하거나 영어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의사소통기능 표현이 원어민/비원어민 코퍼스와 같은 실제 언어사용 데이터에서도 교과서과 유사한 양상으로 분포하는지 여부를 비교·분석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영어과 교육과정의 의사소통기능 표현들이 대부분 언어와 같은 패턴화된 표현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2015 영어과 교육과정의 의사소통기능 표현을 목록화하고 이를 언어 분석 프로그램에 탑재하여 다양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 질문을 설정하였다.

첫째,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의 심화정도(공통영어-영어 I-영어 II) 및 영역(듣기와 말하기-읽기-쓰기)에 따라 의사소통기능 상위범주의 사용 양상에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둘째,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 사용된 의사소통기능 상위범주는 한국인 학습자 코퍼스와 영어 원어민 코퍼스에서 어떤 사용 양상의 차이를 보이는가?

셋째,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 사용된 주요 의사소통기능 하위범주는 한국인 학습자 코퍼스와 영어 원어민 코퍼스에서 어떤 사용 양상의 차이를 보이는가?

II. 선행 연구

송자경과 윤이정(2003)은 van Ek와 Trim(2001)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의사소통능력의 배양을 위해서는 학습내용의 연계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서는 의사소통기능 표현이 적절한 간격으로 ‘반복’되고 그 형식은 보다 복잡한 통사구조의 표현으로 ‘심화’되며 같은 의미의 또 다른 표현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7차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의사소통기능과 언어형식의 예시문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영어 교과서를 1학기과 2학기로 구분하고 어떤 단원에서 어떤 의사소통기능과 언어형식이 출현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의사소통기능의 7개 상위 범주 중 하나인 ‘친교활동’은 이에 대한 중위 범주로 ‘칭찬, 축하, 감탄하기’를 포함하고 ‘칭찬, 축

하, 감탄하기'는 다시 '칭찬하기,' '축하하기,' '칭찬, 축하에 답하기,' '감탄하기,' '격려하기'라는 하위 범주를 포함한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연구에서는 7차 영어과 교육과정 기반의 교과서가 의사소통기능 중 32.43%는 연계성이 잘 구성되었고, 29.73%는 일부 학기에만 포함되어 보완이 필요하고, 29.73%는 연계성이 현저히 떨어지며, 10.81%는 6학년 2학기에만 출현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계성 분석이 불가능하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이들의 연구에서는 의사소통기능 표현이 출현한 단원만 확인하여 사용 빈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못했다.

김진희(2014)의 연구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11개의 의사소통기능 상위범주와 122개의 하위범주로 나누어 수도권에서 채택률이 가장 높은 5종의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의사소통기능은 31%의 비율을 보인 '정보 전달하기와 요구하기'였다. 이는 '정보 전달하기와 요구하기'의 하위 범주인 '질문하기'에 관련한 표현이 빈도수가 가장 높았기 때문이었다. 이는 교과서의 특성상 의문형 표현이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사용된다는 점도 한 가지 이유라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의사소통기능은 16%를 차지한 '감정 표현하기'였다. 이 연구에서는 상위범주로서 '감정 표현하기'는 28개의 하위범주를 포함하여 다른 의사소통기능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를 보인 것이라 분석하였다. 하위범주를 기준한 분석에서는 122개의 의사소통기능 중 87개가 5종의 교과서에 나타났고 각 단원을 기준으로 할 때 상위범주의 의사소통기능이 평균 2.28개 사용되었고 하위범주의 기능으로는 평균 11.2개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김진희는 교과서 개발 시 의사소통기능의 유형을 보다 균형 있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김진희의 연구는 교과서의 듣기와 말하기 대화문 분석으로 제한되어 읽기와 쓰기 영역에서의 의사소통기능의 사용 분포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아현 외(2017)는 중학교 학년별 5종의 영어 교과서, 즉 총 15개의 중학교 영어 교과서에 나타난 2009 영어과 교육과정의 의사소통기능을 교과서와 듣기 평가 코퍼스에 태깅을 하는 방식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국영어듣기평가문항을 분석하여 전국영어듣기평가가 교육과정의 의사소통기능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하였다. 학년별 11개의 의사소통기능 상위범주 중 상위 빈도 5개를 비교했을 때 그 순위는 달랐지만 의사소통기능의 유형은 '정보 전

달하기와 요구하기,’ ‘의지 표현하기,’ ‘감정 표현하기,’ ‘설득 및 권고하기,’ ‘사교 활동 하기’로 일치하였다. 이들 5개 범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1학년 80.47%, 2학년 72.80%, 3학년 68.96%로 나타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5개 범주에 대한 편중성이 다소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사소통기능의 하위범주를 살펴보면 ‘진술하기와 보고하기,’ ‘질문하기,’ ‘질문에 답하기,’ ‘동의하기,’ ‘의도 표현하기,’ ‘제안·권유하기,’ ‘제안·권유·요청에 답하기’의 빈도가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122개의 하위범주 중 8-9개의 의사소통기능 유형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난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중학교 영어 교과서와 전국영어듣기평가 사이의 의사소통기능의 사용 빈도에 대한 상관도($r, p = .001$)는 1학년 0.938, 2학년 0.941, 3학년 0.891로 나타나 전국영어듣기평가가 1, 2, 3학년 교과서에 포함된 상위 빈도의 의사소통기능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전국영어듣기평가는 학년별 교과서에 한 번도 출현하지 않는 기능도 일부 포함하였다(예, 1학년: ‘주제 소개하기,’ 2학년: ‘사과 수용하기,’ 3학년: ‘불평하기’).

강하나 외(2020)은 2015 영어과 개정 교육과정에 기반한 초등학교 영어 교과서(3-5학년 각 5종)의 듣기 대화문에 사용된 의사소통기능의 학년별 계속성관계열성을 조사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의사소통기능의 계속성을 측정하기 위해 11개의 의사소통기능 상위범주가 학년 간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빈도를 유지하는지와 의사소통기능 하위범주에 대해서는 그 유형수와 빈도 유지를 기준으로 계속성을 판단하였다. 반면 의사소통기능 계열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에 사용된 121개의 의사소통기능 하위범주 의사소통기능의 심화 및 확대와 같은 표현 다양성을 조사하였다. 분석 방법은 이아현 외(2017)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교과서 코퍼스에 의사소통기능 유형별 태깅을 한 후 코퍼스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를 분석하였다. 이들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상위범주의 경우 ‘양상 표현하기’와 ‘도덕적 태도 표현하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9개 의사소통기능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빈도수가 대체로 상승하여 대부분의 상위범주의 의사소통기능이 반복적으로 재배열되며 계속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하위범주의 121개 기능 중 46개 의사소통기능의 평균 빈도가 대체로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며 계속성을 확보한다고 평가하였지만 나머지 75개의 의사소통기능은 계속성의

유지가 미흡하다고 보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강하나 외는 영어 교과서 개발 시 학습자에게 반복적인 노출과 직결되는 계속성의 측면은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끝으로 하위범주 의사소통기능의 계열성 분석에서는 5개의 의사소통기능 즉 ‘질문하기,’ ‘확인하기와 상술하기,’ ‘주의 끌기,’ ‘요청하기’ 및 ‘만날 때 인사하기’가 표현이 복잡해지거나 길어지는 등 확대와 심화 측면에서 계열성을 확보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이들의 연구 또한 교과서의 듣기 대화문만을 분석했다는 측면에서 일반화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듣기/말하기 영역뿐만 아니라 읽기나 쓰기와 같은 타 영역까지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여 의사소통기능의 사용 양상을 분석했다는 측면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III. 연구 방법

3.1 분석 대상

첫 번째 연구 질문으로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영어 교과목의 심화 정도에 따라 의사소통기능의 빈도와 유형의 수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2015 영어과 교육과정에 기반한 교과서 중 임의로 YBM 출판사의 공통영어, 영어 I, 영어 II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영어의 영역별 차이에 따른 의사소통기능의 사용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이들 3개 교과서를 듣기와 말하기 영역, 읽기 영역, 쓰기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표 1. 영어 교과서의 영역별 크기 비교

구분	공통영어		영어 I		영어 II	
	토큰수	단원수	토큰수	단원수	토큰수	단원수
듣기/말하기(LS)	10,544	10	6,545	6	7,378	6
읽기(R)	12,314	10	11,842	6	14,890	6
쓰기(W)	3,922	10	1,985	6	3,295	6
총계	26,780	30	20,372	18	25,563	18

듣기와 말하기 영역의 경우 대화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의 연구(예, 강하나 외, 2020; 김진희, 2014; 이아현 외, 2017 등)는 대부분 이들 영역의 분석에 집중되었다. 반면 본 연구는 분석의 범위를 확대하여 읽기와 쓰기 영역도 개별 분석 범위에 포함하였다. 공통영어는 총 10개 단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영어 I 과 영어 II는 6개 단원으로 구성되었다. 총 토큰 수(token, 출현빈도)는 공통영어가 26,780개 단어로 가장 많았고, 영어 II가 25,563개 단어, 영어 I이 20,372개로 그 뒤를 이었다. 영역별로는 공통적으로 읽기, 듣기와 말하기, 쓰기 순으로 토큰 수가 많았다. 이렇게 분석 데이터의 크기가 다를 경우, 절대 빈도수의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빈도수는 ‘frequency/million,’ 즉 백만 단어 당 예측 빈도수로 변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두 번째 연구 질문은 한국인 학습자 코퍼스와 원어민 코퍼스에 나타난 2015 영어과 교육과정 의사소통기능의 비교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분석 자료로서 구어와 문어로 구분하여 표 2와 같이 각 2종의 코퍼스를 준비하였다.

표 2. 한국인 학습자 코퍼스와 영어 원어민 코퍼스의 크기 비교

구분	한국인 학습자 코퍼스		영어 원어민 코퍼스	
	구어	문어	구어	문어
분석 코퍼스	Korean-S	Korean-W	BNC-S	BNC-W
토큰수	32,904	30,532	830,256	1,012,736

한국인 학습자 코퍼스는 Kim(2010)이 구축한 각 3만 단어로 구성된 구어와 문어 코퍼스로 서울 소재, A 대학교의 교양영어 과목에서 수집된 134명의 대학생이 과업 수행 중 산출한 말하기와 쓰기 데이터이다. 전체 참여자 중 과반수인 93명은 1학년, 27명은 2학년, 14명은 3학년 학생들이었으며 이들의 전공은 다양했다. 구어 코퍼스는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한 개별면담, 그리고 문어 코퍼스는 면담 주제 가운데 자유롭게 선택하여 250-350개 단어로 구성된 에세이 작성을 통해 수집되었다. 영어 원어민 코퍼스는 대표적인 영어권 코퍼스 중 하나인 BNC의 샘플 코퍼스(Cobb, 2021)를 활용하였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들 4개 코퍼스에 대해서도 코퍼스 크기의 편차를 고려하여 검색한 표현의 빈도수는

백만 단어 당 예측 빈도수로 변환하여 적용하였다.

3.2 분석도구

현행 영어과 교육과정은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으로 여기에 제시된 의사소통기능은 표 3과 같이 상위범주 11개, 하위범주 121개, 그리고 하위범주에 대한 예시문 723개로 구성되어 있다(강하나 외, 2021).

표 3.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의사소통기능의 구성

의사소통기능 상위범주	의사소통기능 하위범주 예시	개수
1. 정보 전달하기와 요구하기	1. 확인하기와 상술하기, 2. 진술하기와 보고하기, 3. 수정하기	5
2. 사실에 대한 태도 표현하기	6. 동의하기, 7. 이의 제기하기, 8. 동의나 이의 여부 묻기	4
3. 지식, 기억, 믿음 표현하기	10. 알고 있음 표현하기, 11. 알고 있는지 묻기, 12. 궁금증 표현하기	8
4. 양상 표현하기	18. 가능성 정도 묻기, 19. 가능성 정도 표현하기, 20. 의무 여부 묻기	11
5. 의지 표현하기	29. 바람, 소원, 요망 표현하기, 30. 바람, 소원, 요망에 대해 묻기, 31. 의도 표현하기	4
6. 감정 표현하기	33. 기쁨 표현하기, 34. 슬픔 표현하기, 35. 기쁨이나 슬픔에 대해 묻기	28
7. 도덕적 태도 현하기	61. 도덕적 의무 표현하기, 62. 승인하기, 63. 거부하기	8
8. 설득, 권고하기	69. 제안, 권유하기, 70. 도움 제안하기, 71. 요청하기	10
9. 사교활동 하기	79. 주의 끌기, 80. 만날 때 인사하기, 81. 안부 묻기	20
10. 담화 구성하기	99. 주제 소개하기, 100. 의견 표현하기, 101. 의견 묻기	11
11. 의사소통 개선하기	110. 친절히 말해 달라고 요청하기, 111. 반복 요청하기, 112. 반복해 주기	12
총계		121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대규모 데이터 분석의 용이성을 위해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의사소통기능을 분석할 수 있는 목록을 구축하여 Shin, Chon, Lee와 Park(2018)이 개발한 언어 분석 프로그램인 ColloGram

에 탑재하였다.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는 패턴화된 표현으로 구성된 723개의 의사소통기능 예시문이 제시되어 있고 본 연구에서는 이 표현들을 바탕으로 표현을 확장하거나 동사의 경우 굴절변화형을 추가하였다.

110 천천히 말해 달라고 요청하기	Too fast			
	Slow down			
		Slow down please		
		more slowly		
		more slowly please		
		Can you speak more slowly		
		Can you speak more slowly please		
111 반복 요청하기	What did you say			
	I beg your pardon			
	Would you explain that again			
	Would you say that again			
	Would you mind repeating that			
	I don t know what you mean			
		I don t know what you meant		

그림 1. 의사소통기능 예시문 목록화 과정

예를 들어 “more slowly”라는 대표형 변화형으로 ‘please’를 추가하거나 ‘Can you speak’가 추가한 확장형이 포함되었고 “I don’t know what you mean”의 경우 ‘mean’의 과거 굴절형인 ‘meant’로 대체된 표현도 추가하였다. 프로그램에서는 아포스트로피(’)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록에서 아포스트로피는 빈칸으로 처리하였다(예, don’t don t). 이러한 절차를 통해 1,322개의 의사소통기능 예시문으로 구성된 목록을 구축할 수 있었다. 이후 이 목록을 다시 11개의 의사소통기능 상위범주로 분류한 목록과 121개의 하위범주로 분류한 목록으로 나누어 ColloGram에 각각 탑재함으로써 상위범주와 하위범주의 의사소통기능별 빈도와 분포를 분석할 수 있도록 소위 ‘2015 Communicative Function_11 ColloGram’과 ‘2015 Communicative Function_121 ColloGram’을 구성하였다.

3.3 분석 절차

먼저 그림 1과 같이 YBM의 공통영어, 영어 I, 영어 II를 듣기와 말하기 영역, 읽기 영역, 쓰기 영역으로 나누어 11개의 의사소통기능 상위범주의 빈도와 분포를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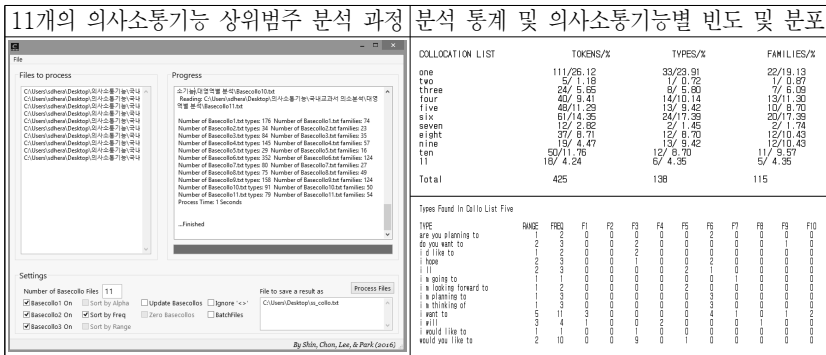


그림 2. 2015 Communicative Function_11 ColloGram의 분석 예시

분석의 결과는 의사소통기능 상위범주의 각 유형에 포함된 예시문의 토큰수(token), 출현한 예시문 유형의 수(type), 그리고 대표 유형의 수(family)가 비율 정보와 함께 제시되며 그 아래는 의사소통기능별 예시문의 빈도(frequency)와 분포(range) 정보가 제공된다. 물론 하위범주 분석 프로그램의 경우 위와 동일한 정보들이 하위범주 기능별로 제시된다. 그 다음은 한국인 학습자 코퍼스와 영어 원어민 코퍼스, 그리고 공통영어, 영어 I, 영어 II를 영역 구분 없이 11개 의사소통기능 상위범주의 빈도를 분석하여 실제 영어 사용을 대표하는 코퍼스와 교과서에서의 의사소통기능 표현의 양상을 비교하였다.

반면 의사소통기능 하위범주의 경우, 총 121개의 유형으로 구분되는 만큼, 공통영어, 영어 I, 영어 II는 영역(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구분없이 3권의 교과서에 나타난 최상위 빈도 10개의 의사소통기능 하위범주를 비교하였다. 끝으로 한국인 학습자 코퍼스와 영어 원어민 코퍼스로 구어와 문어로 구분하여 최상위 빈도 10개의 의사소통기능 하위범주를 비교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논의

4.1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의 심화정도 및 영역에 따른 의사소통기능의 사용 양상 비교

4.1.1 듣기와 말하기 영역 분석

공통영어-영어 I-영어 II는 교과서 개발 시 사용 가능한 어휘의 측면에서 1,800개 내외-2,000개 이내-2,500개 이내로 심화되도록 안내하고 있다(교육부, 2015). 본 연구에서는 어휘 수로 위계가 설정된 위의 3개의 교과서에 대해 의사소통기능의 빈도나 다양성 측면에서도 심화의 과정이 적용되었는지를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표 4와 같이 듣기와 말하기 영역에 나타난 의사소통기능 상위범주의 사용을 분석하였다.

표 4. 영어 교과서 듣기-말하기 영역에 나타난 의사소통기능 상위범주의 빈도 및 다양성

상위 범주	LS /million					
	YBM-공통		YBM-영1		YBM-영2	
	토큰수/%	TTR	토큰수/%	TTR	토큰수/%	TTR
1	10527.31/26.12	29.73	12528.65/29.08	30.49	9081.05/29.78	37.31
2	474.2/1.18	20.00	1069.52/2.48	28.57	135.54/0.44	100.00
3	2276.18/5.65	33.33	2444.61/5.67	43.75	3252.91/10.67	33.33
4	3793.63/9.41	35.00	4889.23/11.35	28.13	1762/5.78	38.46
5	4552.35/11.29	27.08	4430.86/10.28	34.48	2981.84/9.78	31.82
6	5785.28/14.35	39.34	3819.71/8.87	40.00	2710.76/8.89	45.00
7	1138.09/2.82	16.67	1222.31/2.84	12.5	271.08/0.89	50.00
8	3509.1/8.71	32.43	3055.77/7.09	50.00	1490.92/4.89	36.36
9	1801.97/4.47	68.42	1375.1/3.19	88.89	2846.3/9.33	47.62
10	4742.03/11.76	24.00	7333.84/17.02	20.83	3523.99/11.56	42.31
11	1707.13/4.24	33.33	916.73/2.13	66.67	2439.69/8.00	16.67
총 계	40307.28/100	32.47	43086.33/100	34.04	30496.07/100	37.33

Note. 각 범주는 1. 정보 전달하기와 요구하기, 2. 사실에 대한 태도 표현하기, 3. 지식, 기억, 믿음 표현하기, 4. 양상 표현하기, 5. 의지 표현하기, 6. 감정 표현하기, 7. 도덕적 태도 표현하기, 8. 설득, 권고하기, 9. 사교활동 하기, 10. 담화 구성하기, 11. 의사소통 개선하기를 의미함

3개 교과서 모두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의사소통기능 상위범주는 기존 연구(김진희, 2014; 이아현 외, 2017)와 마찬가지로 ‘1. 정보 전달하기와 요구하기’로 그 안의 하위범주로는 대화의 가장 기본이 되는 ‘확인하기와 상술하기,’ ‘진술하기와 보고하기,’ ‘수정하기,’ ‘질문하기,’ ‘질문에 답하기’가 포함되어 가장 빈도수가 높았다. ‘1. 정보 전달하기와 요구하기’는 전체 11개 기능 중 공통영어에서는 26.12%, 영어 I에서는 29.08, 영어 II에서는 29.78%로 전체 사용의 30% 가까운 비율을 차지했다. 하지만 그 다음의 순위는 교과서별로 차이를 나타냈다. 공통영어의 경우 28개의 하위범주를 포함한 ‘6. 감정 표현하기’가 14.35%로 뒤를 이었고, 영어 I은 ‘10. 담화 구성하기’가 17.02%로 두 번째로 빈도가 높았다. 그리고 영어 II도 ‘10. 담화 구성하기’가 11.56%로 두 번째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듣기와 말하기 영역의 경우, 이아현 외(2017)의 연구에서 제시한 중학교 교과서의 의사소통기능의 빈도 순위와 본 연구의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순위는 교육과정의 성취목표가 다른 만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가장 낮은 빈도를 보인 의사소통기능은 ‘2. 사실에 대한 태도 표현하기’로 공통영어에서는 1.18%, 영어 I에서는 2.48%, 영어 II에서는 0.44%를 차지하였다. 의사소통기능 유형의 사용 다양성을 의미하는 TTR은 공통영어-영어 I-영어 II 순으로 일관되게 그 수치가 증가하지는 않았다. 다음의 그림 3을 보면, 3개의 교과서에 나타난 의사소통기능의 상위범주 빈도를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다.

3개의 교과서에서 나타난 의사소통기능의 11개 범주는 교과서 간 큰 차이는 없지만 한 가지 특이점은 교과서의 위계상 가장 상위에 있는 영어 II에서의 빈도가 3개 의사소통기능 상위범주(3. 지식, 기억, 믿음 표현하기, 9. 사교활동 하기, 11. 의사소통개선하기)를 제외하고 가장 낮았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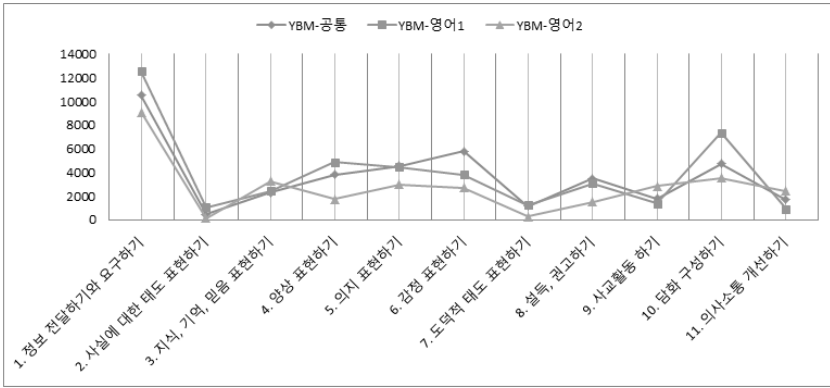


그림 3. 영어 교과서 듣기-말하기 영역에 나타난 의사소통기능 상위범주별 빈도 분포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로 대체로 영어Ⅱ에서 의사소통기능의 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동일한 출판사라고 할지라도 심화 위계를 고려하여 의사소통기능이 반영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4.1.2 읽기 영역 분석

읽기 영역의 경우, ‘1. 정보 전달하기와 요구하기’의 사용이 보다 편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의 표 5를 보면 공통영어에서는 ‘1. 정보 전달하기와 요구하기’ 58.04%, 영어Ⅰ에서는 55.94%, 그리고 영어Ⅱ에서는 무려 60.43%를 차지하였다.

표 5. 영어 교과서 읽기 영역에 나타난 의사소통기능 상위범주의 빈도 및 다양성

상위 범주	R					
	YBM-공통		YBM-영어1		YBM-영어2	
	토큰수/%	TTR	토큰수/%	TTR	토큰수/%	TTR
1	10557.09/58.04	26.92	9542.31/55.94	28.32	9536.6/60.43	26.06
2	81.21/0.45	100.00	0.00/0.00	0.00	134.32/0.85	50.00
3	324.83/1.79	75.00	337.78/1.98	100.00	335.8/2.13	60.00
4	2273.83/12.5	46.43	2617.8/15.35	35.48	1410.34/8.94	42.86

5	568.46/3.13	85.71	506.67/2.97	66.67	873.07/5.53	38.46
6	487.25/2.68	100.00	253.34/1.49	100.00	67.16/0.43	100.00
7	162.42/0.89	50.00	84.45/0.50	100.00	0.00/0.00	0.00
8	406.04/2.23	80.00	84.45/0.50	100.00	67.16/0.43	100.00
9	649.67/3.57	87.50	591.12/3.47	71.43	134.32/0.85	50.00
10	2598.67/14.29	31.25	3040.03/17.82	27.78	2014.78/12.77	43.33
11	0.00/0.00	0.00	0.00/0.00	0.00	1208.87/7.66	22.22
총 계	18109.47/100	38.57	17057.93/100	35.15	15782.4/100	31.91

두 번째 빈도가 높은 기능 또한 3개의 교과서에서 동일했는데 ‘99. 주제 소개하기,’ ‘101. 의견 묻기,’ ‘107. 이해 상태 나타내기,’ ‘108. 대화에 끼어들기’ 등을 하위범주를 포함하는 ‘10. 담화 구성하기’였다. 빈도수가 낮아 총 토큰수(token)과 유형수(type)가 같은 의사소통기능(TTR이 100인 기능)도 3개의 교과서에서 8개나 나타났고, 한 빈도 출현하지 않은 기능도 4개로 듣기와 말하기 영역과 비교하여 읽기 영역에서 의사소통기능이 특정 기능에 편중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읽기 영역 또한 교과서의 심화도와 의사소통기능의 다양성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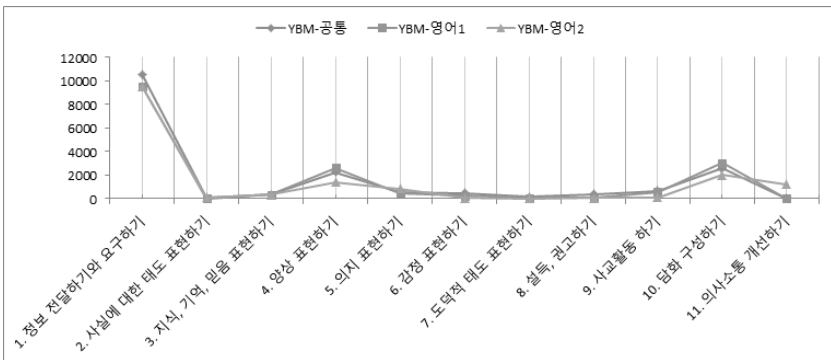


그림 4. 영어 교과서 읽기 영역에 나타난 의사소통기능 상위범주별 빈도 분포

읽기 영역의 가장 큰 특징은 3개 교과서에서의 의사소통기능별 빈도가 그림 4와 같이 거의 일치했다는 점이다. ‘4. 양상 표현하기’가 영어II에서 다소 빈도가

낮거나 ‘11. 의사소통 개선하기’가 다른 두 교과서에는 한 번도 출현하지 않고 영어Ⅱ에만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 외에는 3권의 교과서가 매우 유사한 빈도 분포를 보였다.

4.1.3 쓰기 영역 분석

의사소통기능 사용에 있어 가장 큰 편차를 보인 것이 쓰기 영역이다. 3권에서 교과서에서 한 번도 출현하지 않은 기능을 살펴보면, 공통영어가 4개, 영어Ⅰ이 5개, 영어Ⅱ는 7개에 이른다. 이는 표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다른 영역에 비해 쓰기 영역의 데이터 크기가 작아 대표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기 영역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의사소통기능인 ‘1. 정보 전달하기와 요구하기’는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모든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1. 정보 전달하기와 요구하기’는 공통영어를 51.61%, 영어Ⅰ에서 40%, 그리고 영어Ⅱ에서는 64.58%를 차지하였다.

표 6. 영어 교과서 쓰기 영역에 나타난 의사소통기능 상위범주의 빈도 및 다양성

상위 범주	W /million					
	YBM-공통		YBM-영1		YBM-영2	
	토큰수/%	TTR	토큰수/%	TTR	토큰수%	TTR
1	12238.65/51.61	50.00	9068.01/40.00	55.56	9408.19/64.58	41.94
2	0.00/0.00	0.00	0.00/0.00	0.00	0.00/0.00	0.00
3	0.00/0.00	0.00	503.78/2.22	100.00	0.00/0.00	0.00
4	1019.89/4.3	75.00	6549.12/28.89	53.85	2427.92/16.67	37.50
5	1784.8/7.53	57.14	1511.34/6.67	66.67	2124.43/14.58	42.86
6	1784.8/7.53	57.14	0.00/0.00	0.00	0.00/0.00	0.00
7	0.00/0.00	0.00	0.00/0.00	0.00	0.00/0.00	0.00
8	1274.86/5.38	40.00	0.00/0.00	0.00	0.00/0.00	0.00
9	764.92/3.23	66.67	3526.45/15.56	57.14	0.00/0.00	0.00
10	4844.47/20.43	36.84	1511.34/6.67	66.67	606.98/4.17	50.00
11	0.00/0.00	0.00	0.00/0.00	0.00	0.00/0.00	0.00
총 계	23712.39/100	49.46	22670.03/100	57.78	14567.52/100	41.67

위의 표 6에서 보듯, 공통영어에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능은 공통영어의 경우 ‘10. 담화 구성하기’였고, 영어 I 과 영어 II에서는 ‘4. 양상 표현하기’로 나타났다. 쓰기 영역의 전체적인 빈도를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 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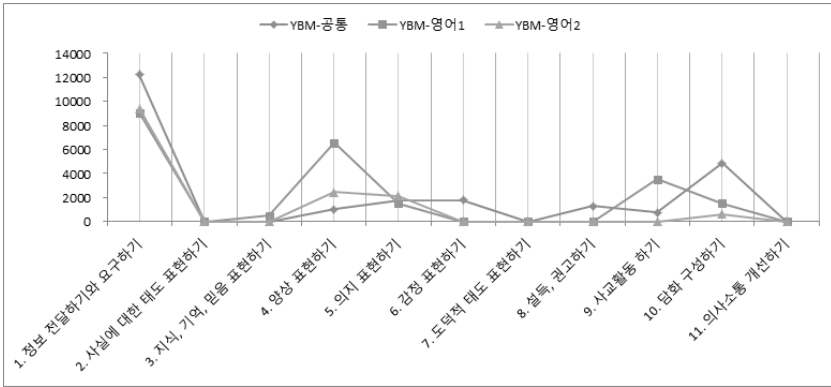


그림 5. 영어 교과서 쓰기 영역에 나타난 의사소통기능 상위범주별 빈도 분포

그림 5에서 보듯, ‘4. 양상 표현하기,’ ‘9. 사교활동 하기,’ ‘10. 담화 구성하기’ 등에서 상대적으로 큰 편차를 보였고 이러한 차이는 교과서에 포함된 쓰기 활동의 유형이나 주제로 인한 것으로 일반화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다고 판단 된다.

4.2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와 한국인 학습자 코퍼스 및 영어 원어민 코퍼스에서의 의사소통기능의 사용 양상 비교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인 공통영어-영어 I -영어 II에 나타난 의사소통기능과 이러한 교육과정을 거친 한국인 학습자들이 구사한 실제 말하기나 쓰기 활동에서 어떤 의사소통기능을 구사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영어 원어민의 언어 사용과는 어느 정도 일치 또는 불일치하는 지를 표 7과 같이 살펴보았다.

표 7에서 보듯, 7개의 데이터를 비교하다보니 이들 데이터에 나타난 의사소통 기능 상위범주의 빈도 비교가 쉽지 않아 그림 6과 같이 그래프로 재구성하였다.

표 7.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 한국어 구어 및 문어 코퍼스, 영어 원어민 구어 및 문어 코퍼스에 나타난 의사소통기능 상위범주의 빈도 비교

상위 범주	YBM-공통	YBM-영1	YBM-영2	Korean-S	Korean-W	BNC-S	BNC-W
1	10754.29	10455.53	9388.57	3039.14	6026.46	11185.71	5183.98
2	224.05	343.61	117.36	0.00	0.00	59.02	5.92
3	1381.63	1521.7	1447.4	759.79	622.30	4227.61	230.07
4	2688.57	3730.61	1643	4467.54	3799.29	4600.99	1679.61
5	2315.16	1865.31	1643	11336.01	10186.03	2498.02	396.94
6	2763.26	1374.44	821.5	8448.82	2227.17	719.06	185.64
7	522.78	441.78	78.24	91.17	98.26	420.35	104.67
8	1755.04	1030.83	469.43	151.96	131.01	1129.77	299.19
9	1120.24	1129	899.74	4133.24	917.07	1477.86	286.35
10	3771.47	4270.57	2268.9	11032.09	4454.34	4172.21	1034.82
11	672.14	294.52	1408.29	182.35	32.75	2210.16	100.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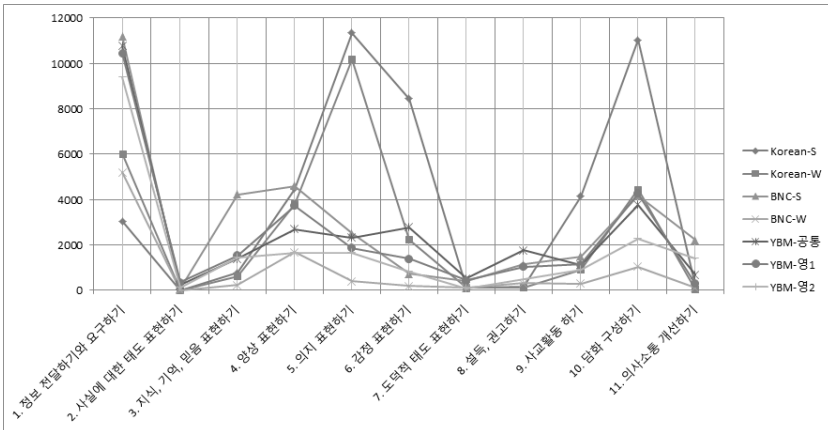


그림 6. 영어 교과서와 국내외 영어 코퍼스에서의 의사소통기능 상위범주의 빈도 분포

먼저 가장 현저한 편차는 한국인 학습자 구어 코퍼스와 문어 코퍼스 모두 ‘5. 의지 표현하기’의 표현이 다른 데이터와 비교하여 월등히 높았다는 것이고, 한국인 학습자 구어 코퍼스의 경우에는 ‘6. 감정 표현하기’와 ‘10. 담화 구성하기’에서도 매우 높은 빈도를 보였다. 이는 한국인 학습자 코퍼스가 특정 주제에 한정하여 수집되면서 생긴 편차라고 사료된다. 실례로 한국인 학습자 코퍼스에서는 구어와 문어 공통적으로 2. 지식, 기억, 믿음 표현하기’의 표현이 단 한 번도 출현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의사소통기능의 빈도가 가장 낮은 데이터는 BNC 문어 코퍼스였고, BNC 구어 코퍼스의 경우는 대체로 유사한 분포 패턴을 보였지만 ‘2. 지식, 기억, 믿음 표현하기’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권의 교과서와 영어 원어민 코퍼스 간의 분포 패턴을 비교하면 몇 개의 의사소통기능 유형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유사한 분포 패턴을 보였다는 점은 한국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서 진정성이 있는 영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4.3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 및 한국인 학습자 코퍼스와 영어 원어민 코퍼스에서의 주요 의사소통기능 하위범주의 사용 양상 비교

본 연구에서는 마지막 연구 질문을 살펴보기 위해 표 7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7개의 데이터에 사용된 121개의 의사소통기능 하위범주에서 각 데이터 당 최상위 빈도 10개의 의사소통기능 유형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7개 데이터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횟수를 다음의 표 8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8.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 한국인 영어 코퍼스, 영어 원어민 코퍼스에 나타난
최상위 빈도 10개의 의사소통기능 하위범주 분석 결과

주요 의사소통기능 하위범주	공통 출현 횟수	주요 의사소통기능 하위범주	공통 출현 횟수
2. 진술하기와 보고하기	7	12. 궁금증 표현하기	1
21. 의무 표현하기	7	13. 모르고 있음 표현하기	1
31. 의도 표현하기	7	15. 기억이나 망각 여부 묻기	1
100. 의견 표현하기	7	19. 가능성 정도 표현하기	1
4. 질문하기	6	34. 슬픔 표현하기	1
29. 바람, 소원, 요망 표현하기	6	48. 선호 표현하기	1
102. 열거하기	5	85. 자기소개하기	1
24. 허가하기	4	101. 의견 묻기	1
45. 좋아하는 것 표현하기	3	112. 반복해 주기	1
69. 제안, 권유하기	3	113. 확인 요청하기	1
11. 알고 있는지 묻기	2	118. 표현 제안하기	1
28. 능력 부인하기	2		

각 데이터에서 나타난 최상위 빈도 10개의 의사소통기능 하위범주 중 7개의 분석 데이터에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난 최상위 빈도 기능은 총 4개로 ‘2. 진술하기와 보고하기,’ ‘21. 의무 표현하기,’ ‘31. 의도 표현하기,’ ‘100. 의견 표현하기’였다. 7개의 분석 대상 중 3개 이상의 데이터에서 최상위 빈도 10개의 의사소통기능 유형에 포함된 항목은 10개였다. 공통영어-영어 I-영어 II 교과서의 경우, 총 6개의 의사소통기능(2. 진술하기와 보고하기, 4. 질문하기, 21. 의무 표현하기, 29. 바람, 소원, 요망 표현하기, 31. 의도 표현하기, 100. 의견 표현하기, 45. 좋아하는 것 표현하기, 69. 제안, 권유하기)이 공통적으로 최상위 빈도 10개에 포함되었다. ‘2. 진술하기와 보고하기’는 한국인 학습자 코퍼스를 제외한 모든 자료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의사소통기능 하위범주로 영어 교과서에서 27-32% 정도를 차지하였다. 그 밖의 5개의 의사소통기능 또한 교과서의 대화문이나 과업활동의 보고 또는 감정표현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기능이였다. 각 교과서별로 공통 출현 횟수가 3이상인 10개의 대표 의사소통기능과 비교해 보면, 공통영어는 10개 기능 중 9개가 일치했으며 대표 기능 중 하나인 ‘102. 열거하기’ 대신 ‘11. 알고 있는지 묻기’가 추가되었다. 영어 I는 8개가 일치했는데 ‘45.

좋아하는 것 표현하기'와 '102. 열거하기' 대신 '12. 궁금증 표현하기'와 '101. 의견 묻기'가 추가되었다. 그리고 영어Ⅱ의 경우에는 7개의 기능이 일치하였는데 대표 기능 10개 중 '24. 허가하기,' '45. 좋아하는 것 표현하기,' '69. 제안, 권유하기'가 빠지고 '15. 기억이나 망각 여부 묻기,' '113. 확인 요청하기,' '118. 표현 제안하기'가 포함되었다. 또한, 이를 이아현 외(2017)의 연구에서 제시한 중학교 교과서에 사용된 11개의 최상위 빈도 의사소통기능 하위범주와 비교하면 '2. 진술하기와 보고하기,' '4. 질문하기,' '29. 바람, 소원, 요망 표현하기,' '31. 의도 표현하기,' '45. 좋아하는 것 표현하기,' '69. 제안, 권유하기'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학교급에 따라 적용되는 의사소통기능 하위범주의 유형에는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의사소통기능 또한 적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과서와 코퍼스와의 비교에서는 3권의 교과서 중 공통영어가 4개의 국내외 코퍼스에 나타난 의사소통기능 유형과 평균 7개가 일치하여 가장 높은 일치도를 보였다. 또한, 3권의 교과서 모두 BNC 문어 코퍼스와 최상위 빈도 10개의 의사소통기능 하위범주 중 7-8개의 유형이 일치하여 의사소통기능 사용의 측면에서는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와 가장 유사한 코퍼스는 영어 원어민 문어 코퍼스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가 말하기와 듣기와 같은 구어 보다는 읽기와 쓰기와 같은 문어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2015 영어과 교육과정에 기반한 공통영어-영어Ⅰ-영어Ⅱ의 교과서를 중심으로 교과서 위계에 따른 의사소통기능의 반영 정도와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한국인 학습자 코퍼스와 영어 원어민 코퍼스에서 나타난 의사소통기능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도 함께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3권의 교과서에서는 듣기와 말하기, 읽기, 쓰기와 같은 영역에 상관없이 11개의 의사소통기능 상위범주 중 '1. 정보 전달하기와 요구하기'가 공통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교과서 위계에 따른 의사소통기능의 반영 비율이나 다양성 등에서는 명확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권의 교과서에 사용된 의사소통기능의 분포가 가장 유사한 영역은 읽기였고 가장 큰 편차를 보인 영역은 쓰기였다.

둘째, 3권의 교과서는 영어 원어민 코퍼스인 BNC 구어와 문어 코퍼스에 나타난 의사소통기능의 분포와 상당히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하지만 한국인 학습자 코퍼스의 경우는 데이터의 수집 과정에서 사용한 면담 및 쓰기 주체의 영향으로 추정되는 이유로 '5. 의지 표현하기,' '6. 감정 표현하기,' '10. 담화 구성하기'가 교과서나 영어 원어민 코퍼스에 나타난 비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것이 이해능력과 표현능력의 불일치에 인한 것인지 데이터의 대표성이 문제인지는 좀 더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기능 상위범주의 분석 기준이기는 하지만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 반영된 의사소통기능 표현의 비율과 영어 원어민이 실제 사용하는 의사소통기능 비율이 대체로 일치하였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분석 결과였다.

셋째, 3권의 교과서와 4개의 코퍼스에 나타난 의사소통기능 하위범주를 분석하기 위해 각 데이터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10개의 하위범주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전체 7개 데이터 모두에서 사용된 최상위 빈도의 의사소통기능은 '2. 진술하기와 보고하기,' '21. 의무 표현하기' 등 4개였고, 3개 이상의 데이터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의사소통기능은 10개였다. 이를 통해 어휘 선정의 기준(신동광, 2018)과 마찬가지로 여러 데이터에서 분석한 의사소통기능의 총 빈도수보다도 사용의 범위(range)를 측정하는 방법이 데이터의 특수성을 보완하는 보다 보편적인 의사소통기능의 선정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의사소통기능의 빈도와 분포를 자동으로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현하였고 이를 통해 분석 대상의 데이터 크기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대규모의 데이터를 손쉽게 분석할 수 있는 장을 열었다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이와 같이 다양한 대규모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학습 또는 지도해야 할 의사소통기능의 우선순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그 결과를 보다 효율적으로 교수·학습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속에서 주의해야 할 한 가지는 현재 의사소통기능이 목록의 형태로 제시되면

서 단순 암기를 유도하는 인상을 줄 수 있지만 의사소통기능 자체보다는 주요 의사소통기능이 요구되는 과업을 개발하여 자연스럽게 이를 활용하며 습득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출판된 전체 교과서를 분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반화의 한계가 존재했고 한국인 학습자 코스 또한 대표성을 담보하기에는 주제의 균형이나 크기 면에서 부족했다. 아울러 교과서의 단위별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통계처리에도 한계가 있었다는 점은 추후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Works Cited

- Brown, Douglas.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4th ed. New York: Longman, 2000. Print.
- Cobb, Tom. "BNC Sampler." *Corpus. Web Concordance English*. Compleat Lexical Tutor, 15 September 2021. Web. 15 September 2021.
- Haliday, Michael. *Explorations in the Functions of Language*. London: Edward Arnold, 1973. Print.
- Finocchiaro, Mary, and Christopher Brumfit. *The Functional-notional Approach: From Theory to Practice*.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1983. Print.
- Kang, Hana, and Jeong-Ryeol Kim. "An analysis of continuity of communicative functions in elementary school English textbook." *Primary English Education* 26.1 (2020): 57-82. Print.
- [강하나, 김정렬. 「2015 초등 영어교과서의 의사소통기능 연계성 분석」. 『초등영어교육』 26.1 (2020): 57-82.]
- _____. "Exploring the inter-grade dividing criteria of the elementary grade group English textbooks: Sequence analysis of the communicative functions of listening dialogues." *Foreign Languages Education* 28.1 (2021): 145-168. Print.
- [강하나, 김정렬. 「초등 영어 교과서의 학년군 내 분책 기준 탐색: 듣기 대화문 의사소통 기능의 계열성을 중심으로」. 『외국어교육』 28.1 (2021): 145-168.]
- Kim, Jinhee. *An Analysis of the Communicative Functions in Middle School English Textbooks for 1st Grade-based on the 2009 Revised English Curriculum*.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gang University, Seoul, 2014. Print.

- [김진희.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의 의사소통 기능 분석: 말하기 듣기 영역의 대화문을 중심으로」.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서울, 2014.]
- Kim, Misook. *An Error Analysis of a Learner Corpus of Written and Spoken English Produced by Korean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2010. Print.
-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A Study of the 7th National Curriculum Development of English*. Research Report CR 97-28. Seou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1997. Print.
- [한국교육개발원. 『제7차 영어과 교육과정 개발 연구』. 연구보고 CR 97-28.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7.]
-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Proposal for National Curriculum of English*. Research Report CRC 2015-25-12. Jincheon: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2015. Print.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영어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연구보고 CRC 2015-25-12. 진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5.]
- Lee, A-hyeon, Misook Kim, and Dong Ju Lee. “A corpus-based analysis of communicative functions in middle school English textbooks: Focus on listening and speaking.” *Foreign Languages Education* 24.3 (2017): 123-147. Print.
- [이아현, 김미숙, 이동주. 「중학교 영어 교과서의 의사소통 기능에 대한 코퍼스 기반 분석: 듣기와 말하기를 중심으로」. 『외국어교육』 24.3 (2017): 123-147.]
- Lee, Hyunwoo, Sung Hee Lee, and Hikyoung Lee. “On the communicative functions and their exponents in the 2009 Revised National English Curriculum.” *Secondary English Education* 6.1 (2013): 122-147. Print.
- [이현우, 이성희, 이희경. 「2009 개정 영어고 교육과정의 의사소통 기능과 예시문」. 『중등영어교육』 6.1 (2013): 122-148.]
- Ministry of Education. *National Curriculum of English*. Seoul: Ministry of Education, 1992. Print.
- [교육부. 『외국어(영어)과 교육과정』. 서울: 교육부, 1992.]
- _____. *National Curriculum of English*.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2015. Print.
- [교육부. 『영어과 교육과정』. 세종: 교육부, 2015.]
- Shin Dongkwang. “Exploring vocabulary selection criteria in developing a basic English vocabulary list.”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8.2 (2018): 381-401. Print.
- [신동광. 「영어 기본 어휘 선정 기준의 고찰」.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2 (2018): 381-401.]
- Shin, Dongkwang., Yuah Vicky Chon, Shinwoong Lee, and Myong Park. *COCA_MWU20 ColloGram*. Computer Software. Seoul: e-Future, 2018.

- Song, Ja-Kyung, and Lee-Jeong Yun. "An analysis of the sequencing and grading in elementary school English textbook: Focused on communicative functions and their exponents in the 7th National Curriculum." *Primary English Education* 9.1 (2003): 149-188. Print.
- [송자경, 윤이정. 「초등학교 영어교과서의 연계성 분석: 제7차 교육과정의 의사소통기능문을 중심으로」. 『초등영어교육』 9.2 (2003): 149-188.]
- van Ek, Jan Ate, and Louis Alexander. *Threshold Level English*. Oxford: Pergamon, 1980. Print.
- van Ek, Jan Ate, and John Leslie Trim. *Vantage*.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Print.
- Wilkins, David Arthur. *Notional Syllabuses: A Taxonomy and Its Relevance to Foreign Language Curriculum Development*.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6. Print.

신동광 (광주교육대학교 / 교수)
주소: (61204) 광주광역시 북구 필문대로 55
이메일: sdhera@gmail.com

논문접수일: 2021. 09. 25 / 심사완료일: 2021. 11. 05 / 게재확정일: 2021. 11. 10